빚·범죄… 독버섯 '인터넷 도박'

접근 쉬워 각종 폐해 속출… 10대까지 확산세

#1 서모(29·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기업형 휴대전화 대리점의 간부로 일하면서 서른도 안 돼 1억원을 모았다. 월급도 35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회사동료와 재미삼아 시작한 인터넷 카지노 도박이 문제였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급기야 회삿돈에도 손을 댔다. 그가 1년 동안 날린 돈은 무려 4억원에 이른다.

#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던 공무원 조모(44)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뇌물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터넷 도박이 경찰에 적발되자 급기야는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스팸 메일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카지노' 등 각종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 대학생, 노인 등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도박중독치유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소 이후 접수된 도박관련 상담은 모두 800건. 이 가운데 인터넷 도박 중독 상담이 25%(200건)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토토(15%)가 그 뒤를 이었다. 스포츠 토토가 대부분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도박 상담이 전체 40%를 차지하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억대의 빚을 지거나 2차 범죄를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 도박치유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1년 광주지역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도박은 인터넷 도박과 스포츠 토토로 각각 24.6%, 20.4%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가 주로 인터넷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판돈의 제한이 없는 경우다. 재미삼아 몇십만원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나중에는 한판에도 수천만원이 오가게 된다. 또 각종 도박 사이트 내에서 수수료 없이 곧장 '사이버 도박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시장이 연간 4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3명으로 지난 2010년(151명)에 비해 약 25%가 늘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52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지난 5월에는 60억원대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자 등 2명이 광주경찰청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재점화

두개골 구멍 확인… '인위적 상처'

37년전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을 둘러싼 타살 의혹이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장 선생 유골을 지난 1일 통일동산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검시한 결과 두개골에서 5~6㎝ 크기의 구멍이 확인되고 '인위적인 상처'라는 검안소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장 선생의 타살 의혹은 사망 당시부터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유신시절인 1975년 8월 17일 장 선생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산악회원들과 산에 갔던 장 선생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14m 높이의 절벽 아래였다. 월간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장 선생은 유신정권에 저항한 대표적인 재야운동가로서 사고 당시 민주회복을 위한 제2차 100만인 개헌 서명운동을 준비중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장 선생이 실족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 및 재야단체 등은 즉각 '정치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경사 75도의 암반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신체에 큰 외상이 없었고 오른쪽 귀 뒤에 두개골만 파열돼 있는 등 추락사한 것 치고는 시신이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으나, 의혹 여지는 다분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명쾌한 답을 내지 못했다.

언론인이자 정치가였던 장 선생은 1953년에 '사상계'를 창간해 사장이 된 이후 정계에 입문, 제7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통해 정권에 맞섰다. /연합뉴스

전주 롯데백화점 불

100명 대피 소동

수많은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던 대형 백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오후 4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8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고객들이 대피했다.

8층 기계실에서 시작된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연기를 보고 놀란 고객 10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과부하 때문에 기계실에 불인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주변 가게 상호만 말해도 112 출동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가게의 상호만 말해도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술집, 당구장 등 업체의 상호와 위치,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112신고 출동 때 활용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소자료에 등록된 1천만여 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범죄나 사고 발생 때 정확한 주소가 아닌 어느 지역 어떤 상호 주변이라고만 알려줘도 현장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돼 출동시간이 크게 빨라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긴급배치 시스템(IDS)을 가동해 순찰차량의 현장 출동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윤참 〈8632〉 김종두

승용차 추락 2명 사망

15일 새벽 5시께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의 한 도로에서 이모(3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와 뒷좌석에 탄 김모(여·26)씨 등 2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김모(여·25)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갯벌에 갇힌 돌고래 2시간만에 구조

쌍나팔

○…연안 깊숙이 들어왔다가 갯벌에 얹혀 죽을 위기에 처했던 돌고래 한 쌍이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상태로 바다로 회귀.

○…1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5분께 신안군 비금면 원평항 내 갯벌에 1.8m, 1.6m 크기의 돌고래 한 쌍이 얹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2시간여의 구조작전 끝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다는 것.

○…목포해경 김상근 경사는 "죽을 위기를 맞았던 돌고래를 어선에 실어 큰 바다에 풀어 줬더니 한 마리가 어선을 향해 인사를 하듯 고개를 들었다 사라졌다"라고 귀띔.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보문고 애꿎은 학생들 어쩌라고…

시교육청과 자사고 줄다리기 … 무더기 전학사태 우려

광주 보문고의 자사고 지정 반납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더기 전학이 예상되는 등 학생 피해는 물론 학교행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보문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가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해제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1학년 60~70여명이 전학 절차를 밟거나 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고교 1학년 전학의 요건(6개월 1학기 이수) 충족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일반계고 등으로 전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민원실은 보문고 학부모들의 전학 문의 전화와 방문 민원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다. 자사고 반납사태 이후 10여일 동안 걸려온 전학문의 전화만도 200여통에 달한다.

전학에는 1학년 학부모들이 적극적이다. 내년 수험을 앞둔 2학년보다 1학기를 마친 1학년이 옮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학부모는 "미래가 결정될 고교에서 공부에 전념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기중에 학교를 옮겨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동요하는 하는 아이를 달래 공부시키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보문고가 자사고를 유지하더라도 무더기 전학사태가 빚어지면 정원급감, 과원교사 발생 등으로 학교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에는 현재 자사고 1,2학년 4학급이 비어 있는 상태다.

보문고측과 시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4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답보상태에서 16일 최종타결에 총력을 모을 방침이다. 보문고는 애초 전임 교육감의 약속대로 과원교사 16명 전체를 공립으로 특채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시교육청은 학급 수를 감축해 총정원 과원교사 6~8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보문고 측은 오는 9월 1일자로 과원 교사를 특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사일정상 당장 9월 1일자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태해결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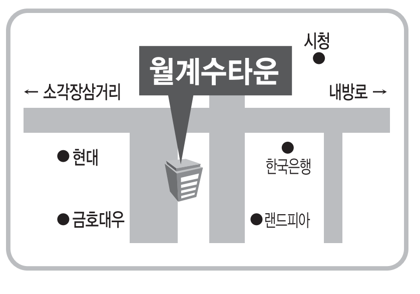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자격증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면접후 학습능력 가능한 자)
① 교육일정 :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② 교 육 비 : 150,000원
③ 모집인원 :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 사회복지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 호 사 :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사진 2매

★교육 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9월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혜 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방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스윙분석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PAR3 게임모드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